



5면

바이오 기업 유치로 신성장동력 가동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음 10월 28일) 제3634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북형 반할 주택’ 추진

### 도, 저출생 대책 일환...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 등 혜택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자 전북형 저출생 대책으로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지난 18일 발표한 전북자치도가 주거비 부담 없는 삶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하는 전북형 반할 주택을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결혼과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주거 안정 대책으로 '전북형 반할 주택'을 도입한다.

전북형 반할 주택은 도내 인구감소 우려 지역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500세대를 시범 공급하며,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반할 월 임대료, 출산 시 월세 면제 등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전북형 반할 주택의 핵심 혜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대 5,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목돈 마련 부담을 덜어준다. 둘째, 시세의 50% 수준의 월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월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 주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셋째,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더 나아가 반할 주택을 차별화된 특화시설로 채워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최적의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지층부 침입 방지시설, 지능형 영상분석 장치, 자동제동기와 공기 안전 매트 등을 설치한다. 또한 탄소중립 친환경 녹색단지 조성을 위해 조경 면적 확대, 야외 중앙광장 배치, 고성능·고효율 환호 등 사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27일 도청에서 '전북형 반할 주택' 추진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용하고, 특히, 아이와 여성을 위한 특화시설로 키즈스테이션, 여성 및 임신부주차구역 설치, 단계별 베리어 프리 구축, 아이방 자연친화 친환경 마감재 사용할 계획이다.

반할 주택 공급으로 청년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는 취업과 주거 지원 문제, 저출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출생 장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정책도 확대한다. 현행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의 무이자 용자를 지원하던 것에서 신혼부부 최대 5,000만원, 청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18~39세 미혼 청년으로서, 시군과 한국도지주

택공사(LH) 또는 전복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하여 6년까지 가능하며, 1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추가해 8년까지, 2자녀 이상이면 4년을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상반기 도내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에 있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반할 주택이 단순히 주택을 짓는다는 의미를 넘어 저출생 대책의 중요 지렛대가 될 것"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하얀 눈으로 뒤덮인 덕유산



도내 곳곳 많은 눈이 내린 27일, 무주 덕유산은 첫 눈으로 하얀 옷을 갈아입었다. 이날 오전 9시 47분 기준 덕유산 12.2cm, 무주군 6.9cm의 높은 적설량을 보였다. (사진=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 전북자치도, 대설 대응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

### 재난대책본부 2단계로 상황 도민 안전 확보 총력 다하기로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무주, 장수, 진안 지역에 대설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상황 운영하고,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긴급 대설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찬공기의 남하에 따라 기온이 큰폭으로 떨어져 27일에서 29일 사이 비와 눈이 내릴 예정이다.

전북서부 1~3cm, 전북동부 3~10cm로 최대 15cm이상 적설이 예상된다. 강풍과 함께 5~30mm의 강우량이 동반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29일에는 전북동부 1~5cm의 적설이 전망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13개 협업기관 관계부서와 유관기관 및 14개 시군과 합동대책회의에서 교량, 터널, 고갯길 등 삼습 결빙 구간과 취약 지역에 대한 시설 점검, 농축수산물 보온 조치 등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랭 질환자 응급의료체계 구축, 취약계층 관리,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품 점검 등을 통해 도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특별법 시행 한달 앞으로

### 도, 막바지 총력... 법 시행일인 내달 27일 49건 즉시 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12월 27일 전북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지역 경제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행 준비에 막바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특별법은 지역의 자치권과 특례 사업을 확대해 지방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중요한 법안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북특별법 개정법을 131개 조문을 75개 사업 과제로 구체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기본구상과 실시계획을 통해 49건의 특례는 연내 실행, 나머지 26건은 2025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24건을 수행하고, 30건의 조례를 제·개정 완료했으며 연내 14건에 대한 제·개정 추가 안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전북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새만금 고용 특구'가 가장 먼저 지정되며, '농생명산업 지구', '문화산업 진흥 지구', '산림복지 지구' 등은 후보 지구를 선정해 오는 2025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러한 지구 등을 조성하는 특례는 전북의 특화된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모든 시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례 외에도, 각 시군의 특색을 살린 사업을 초기 단계부터 함께 기획해 특례 실행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를 통해 도내에서도 발생하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게 전북자치도의 구상이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해 실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례 실행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평가 지표를 마련했다. 실행 단계에서는 특례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모니터링해 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현규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12월 27일 특별자치도법 시행은 전북이 도약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각 특례가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12월 시행령 제정과 시군, 의회, 전문가 등을 통해 발굴한 2차 입법과제 49건의 특례와 관련해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며 부처의 수용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만호 기자

##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 비전 선포

### 원광대-원광보건대, 글로벌30 선정 따라 선포식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와 원광보건대학교(총장 백준홍)가 글로벌대학30 선정에 따른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 비전 선포식을 27일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원광대, 원광보건대가 공동 주최하고, 원광대와

원광보건대가 주관한 비전선포식은 지지체 및 유관기관, 대학, 산업계 관계자, 동문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황진수 원광대 부총장의 글로벌대학 실행계획 발표에 이어 원광대와 원광보건대 통합 글로벌대학 목표인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

대학' 비전이 선포됐다.

박성태 총장은 "통합 원광대학교는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서 대한민국 생명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라며 "대학과 지역 사회, 글로벌 네트워크가 함께하는 혁신과 상생의 새 시대에 변함없는 성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정읍시의회  
www.jcc.or.kr